

#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● 공산권 동포에게 사랑의 책을- '소련·중국 동포에게 책보내기 운동' 전개 / 공산권 수교 분위기 타고 정부차원도 활기 / 동아·지식산업·나남 등 출판사 활동 돋보여 (한겨레신문 8월12일 조선휘기자)

● "농촌경제를 살리자" 연구 활발 / 독점자본의 농업지배 다룬 책 많아 / 눈앞에 닥친 수입개방 대응전략도 (서울경제신문 8월13일 신정섭기자)

● 사보편집자도 공채시대 / 한국잡정원 등 30여사 채용공고 / 체제·내용 갈수록 수준높아...전면직종화/창간되어 인력난...기존요원 위탁교육도 (중앙경제신문 8월14일 정연수기자)

● 베스트셀러 전국집계 나온다-출판협동조합서 10대 도시 표본조사 / 독자들의 불신·혼란 막개 / 이달부터 매달 발표기로 (한국일보 8월14일 서화숙기자)

● 통계바탕 프랑스인 해부한 책 나와 / 「1백% 프랑스인」...사교·생활방식 낱말이 소개 / 소·중 동포에 책보내기 운동, 출협/통일도서전 급서 등 5백여종 전시 / 판매 / 唐시인 시와 삶 만화로 그린 책 2권 출간 (한국일보 8월14일)

● 일본연구·출판 부진하다 / 번역·기행·체험기가 고작 / 문학·예술·민속 등은 全無 / 부정적 국민 시각, 출판사 장사속도 문제 (동아일보 8월14일 양영채기자)

● 잘 팔리는 책 다양해졌다-이데올로기에서 컴퓨터 등 기술서적까지 / 전통적 강세 시·소설류 하향세로 반전 / 인문·사회과학책 베스트 50 중 30%나 / 육아·요리·취미·테크 등 실용서도 불티 (매일경제신문 8월14일 김경자기자)

● 단행본 시장 대형출판사 속속참여 독자인 웃음 군소업체엔 한숨-계몽사·교보문고·서울문화사 '활성화 선언' / 다양한 기획으로 '새바람' 기대 부풀게 / 판매전략만 앞세운 질서교란 걱정도 (국민일보 8월14일 손수호기자)

●출판가 이번 조선총독부 자료집 출간분 / 일제의 식민통치 위해 간행된 자료들 / 「조선의 風水」 「朝鮮의 鬼神」 등 큰 인기 / "자료적 가치 인정되나 무분별 배포는 곤란" 반론도 (서울신문 8월15일 임영숙기자)

●PC 보급따라 피해 급증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·치료법 소개 출판분 / 세미나 개최·설문조사·속간 등 추진 (한국경제신문 8월15일 이정환기자)

●한글세대 겨냥 古典 출간 활발 / 「홍길동전」 「채봉감별곡」 등 현대적 문장으로 새롭게 작품해석 / 김구용씨 「列國志」 10권 완간 어린이용 「그림 三國志」도 곧 나와 (동아일보 8월16일)

●추리소설 소재 다양화-原電·컴퓨터·에이즈·인신매매 등 / 돈·치정에 얽힌 수사물 탈피 / 첨단과학·사회문제 등 다뤄 (매일경제신문 8월16일 김병재기자)

●부모와 자녀사이 세대의 벽 허문다-「내아들아...」 「아버지...」 등 30여종 출간 / 「가치관의 깊은 골 해소」 시도 (서울경제신문 8월17일 신정섭기자)

●북한출판사업은 철저한 관영-전국제문제조사연구소 이기봉씨 기고문서 밝혀 / 단행본 발행량 정치·문학·예술 순서 (일간스포츠 8월17일)

●전국 책방 휴업 잇따라-조합 등 할인판매 항의... 부산 이어 다른 도시 동조 / 특수매장 유통서적 10% 잠식 / 영세상도산 우려한 생존권 대응 (한겨레신문 8월17일 이수윤기자)

●부산서점들 무기한 휴업-연급매장 등 할인판매에 반발 / 500여점포 정가판매 촉구 실행행사 (한국경제신문 8월17일)

●'책 한권에 표지 둘' 이색출판-독자도 각양각색 "취향따라 선택하세요" / 디자인 구메시대...출판사 '판매안전판' 효과 노려 / 기존방식보다 5~10% 신장...전시공간 부족 부채질 비난도 (일간스포츠 8월17일 이진기자)

●벼랑위 영세서점 철시 파동-부산에서 촉발...전국주요도시 책방가세 / 할인매장 횡포 학교·출판사 직거래 항의 (한겨레신문 8월18일 조선휘기자)

●서점휴업 전국서 강행-공제조합의 덤핑 항의 어제부터 서울·인천·대구도 돌입 / "정가판매제 입법화 요구" 연합회 (서울신문 8월18

일)

●지하철 독서인구 늘고 있다 / 통근시간 길어진 젊은 직장인 주류 / 지하철서점 판매 연 20%씩 증가 / 도서자판기도 9월 하순경 등장 / 여자, 베스트셀러 남자, 성공철학 등 인기 (매일경제신문 8월18일 박홍재기자)

●「三國志」출간 3과전 / 민음·범우·중원문화 계각기 특색 / 폭넓은 독자층 형성 시장성 높아 (경향신문 8월18일 이상문기자)

●서점상 휴업 전국 확산 / 연급매장·공제조합 할인판매 항의 / 부산 이어 서울도 실행행사 들어가 (매일경제신문 8월18일)

●古書 동호인의 벗 「옛책사랑」 사라진다-현책 명인 공진석씨 타계...여름호로 종간 / 풍자·해학이 깃든 문체로 사랑받아 (중앙일보 8월19일)

●기능인력 달려 출판계 몸살 / 임금 낮고 근무환경 나빠 기피 (중앙일보 8월19일 정교용기자)

●대하소설 독서계 휩쓴다 / 「삼국지」 「마루타」 「임궐정」 등 슈퍼셀러 / 창작·번역물 등 고무...기복없는 호황 (스포츠서울 8월20일 류창하기자)

●지리·경제관계 연구 산업지리학 / 산업분포·기업입지와 생산성 등 분석 / 「공업입지론」 「경제지리」 등 출간도 활발 (서울경제신문 8월20일 신정섭기자)

●통일문제 다룬 서적 많이 팔려 / 같은 책 디자인 바뀌 동시출간 눈길 / 김용옥교수 「讀氣學說」 부상...인생론 퇴조 (중앙경제신문 8월20일 김용선기자)

●기업 이색 출판물 잇달아 / 社内 진기록 엮은 「기록보유자들」 펴내 / 노사협조 필요성 그림으로 쉽게 풀이 / 사내 방송원고 모음도 (중앙경제신문 8월21일)

●전국확산 서점휴업 일단수습 / 덤핑 근절 약속불구 불씨 남아 / 低마진·임대료 폭등 등 해결 급선무 (한국경제신문 8월21일 이정환기자)

●'책' 디자인 시대 예뻐야 잘 팔린다-종이질·표지모양 등 판매 큰 영향 / 독자들 고상한 책 선호 / 비단천 양장에 금박글씨 입혀 출판도 (한국일보 8월21일 서화숙기자)

●非전공자 저술 인기베스트셀러로-「철학에세이」 「거꾸로 읽는 세계사」 등 / 법학도가 쓴 「철학에세이」 50만부 팔려 / "대중적 문체·폭넓

은 시각에 공감" 분석 (한국일보 8월21일)

●나후...복잡...책 유통구조가 화악고-전국서점상 휴업사태 왜 일어났나? / 일부매장 할인판매가 불씨 제공 / 일단 진정단계...재폭발 가능성존 (매일경제신문 8월21일 김경자기자)

●문학기행·연극공연·저자강연 등 출판사 판촉 다양해졌다 / 출간된 책 모임마련 활발 / 독후감 수기모집 탈피 독자참여 본격화 / 「과학캠프」 「氣功시연」 「사물놀이 강습」까지 (동아일보 8월21일 양영채기자)

●국내저작물 해외출간 가지개 / 올 10여종...아동물 한국학분야 많아 / 「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」 소련서 연내에 나올 듯 / 문학서적은 거의 없어 정부지원책 절실 (동아일보 8월21일)

●'서울圖書展' 5년만에 부활 / 출협, 10월11~17일 잠실체조경기장서 개최 (동아일보 8월21일)

●소련 출판물 국내 진출 활발-한·소 저작권 계약 잇달아 / 계약료 고가 부채질...위탁관리업도 성행 / 미수교국 등 비밀삼아 대부분 해적판 출간 (한겨레신문 8월22일 조선휘기자)

●한·소 출판교류 활성화 모색-蘇출판사 「프로그래스」 오레신 편집위원장 / 개혁 이후 문학서 등 간행분...중이부족 애로 (한국경제신문 8월22일 이정환기자)

●출판가에도 일본자본 밀려온다-고급문화에까지 倭色침투 / 국내선 대응책보다 유치경쟁에 열올려 (세계일보 8월22일)

●「한국여성 洋裝 變遷史」 출간-유수경교수 박사학위논문 묶어 / 개화기부터 60년대까지 고찰 / 최초 양장여성·패션소도 기록 (중앙경제신문 8월22일 이덕계기자)

●베스트셀러는 광고가 만든다-출판 홍수속 치열한 홍보경쟁 / 「孫子兵法」 10억 뿌려 매출 45억 기록 / "돈싼 만큼 팔린다"... 올 80억 웃돌 듯 (중앙경제신문 8월22일 김형근기자)

●서점·출판업계 '마진율 공방' / 주로 참고서·교재싸고 줄다리기 / "10% 인상을... 채택때 비리없으면 가능" 서점 / "부실경영 전가...20년 관행개는 행위" 출판사 (조선일보 8월23일 최구식기자)

●불붙은 '페레스트로이카' 논쟁-사회주의변혁 관련 논의 성과 잇따라 출간 / 「사회주의 포기」 '인간적

사회주의' 시각 갈려 / 학문적 접근 길트는 기초자료 발빠른 소개 (한겨레신문 8월23일)

●전국도서전시회 재개-장소마련 못해 중지 5년만에 / 90서울도서전으로 바뀌 '책 잔치' / 10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서 (매일경제신문 8월23일 김경자기자)

●출판사·교육자 사이 '공공연한 너물' 채택비 부조리-해방후 자리 잡은 악습 / 서점·출판사 마진전쟁 때 부각 / 참고서·교재 중간商 로비 과열 / 책 선정되면 사례 관례화 (조선일보 8월24일 최구식 기자)

●출판계 잔잔한 화제 思母書 소리 없는 베스트셀러 / 「어머니가 가르쳐 준 노래」 작가 자신의 모친에 대한 회상과 고백 / 「엄마 어머니 어머니」 현직장관·소녀가장·언론인 등 글모아 / 「그리운 등불로 떠오르는 어머니」 여류 25명이 모성의 역사·사회성 분석 (국민일보 8월24일 손수호기자)

●영화소설 「죽은시인의 사회」 중복출판 말쑥 / 美출판사 저작권...국제분쟁 조짐 (중앙일보 8월26일 정교용기자)

●유란·퇴폐 출판물 홍수-올상반기 심의대상중 42%가 불량판정 / 일본 저질도색만화·소설 등 대부분 / 등록된 출판사마저 버젓이 출간 / 청소년 무방비 노출 피해 심각...출판인 각성 절실 (스포츠서울 8월27일 류창하기자)

●'토지경제' 출간 러시-제한된 자원...정책방향 제시 / 땅의 바른 이용·개발 위한 연구 활발 / 40~50여종...새 '학문영역' 구축 (서울경제신문 8월27일 신정섭기자)

●독서계절 겨냥 신간 쏟아져 / 「사랑나누기」 「이성과 자연」 눈길 / 10월에 「서울도서전」...뉴미디어시대 걸맞게 다양화 (중앙경제신문 8월27일 김용선기자)

●항소이유서 공개출판 부쩍 활기-양심수들 실정법 논리·여론의 벽에 대항-최근까지 10종의 법정기록 책으로 나와 / 유시민씨 「아침으로 가는 길」 공감 확산의 계기 / 문익환·임수경씨 정부 통일관 반박 관심 (한겨레신문 8월28일 조선휘기자)

●전기·평전·자서전·회고록·체험기 출간 활발 / 손문, 고르비부터 태백산맥중주기까지 다양 / 고급 독자층 겨냥...외국번역물 치우친게